

# 온 산에 부처님 미소 '인류의 보배'

## 특별기획

### 경주남산 재조명

삼릉골을 따라 오르다가 방향을 잃고 어느 쪽으로 가야하나 망설이며 고개를 들었을 때, 저기 저편의 미소. 아찔하니 눈이 부셨다. 삼릉골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마애관음보살상이다.

천년 전 저 바위를 쫓았던 이는 누구였나. 들어가고 나온 산에 담은 마음은 무엇이었나. 자구 1천년의 시간을 건너뛰려는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다. 바위가 부서져 모래가 되고, 조그마한 모래 한 알경이 손가락 사이에 넣고 비비며 모래 한알의 무게를 깨치게 된다. 바위도 부처의 한 조각이다. 남산은 그런 산이다.

#### 70여개 답사로 '작지만 큰산'

경주도심 남쪽에 자리해 남북으로 길게 거북형상으로 누워있는 남북 12km, 동서 4km, 해발 494m의 아트막한 산. 불교 전래 이전부터 남산은 신라인들에게 신령스런 대산이었다. 백성들의 고단함을 달래주고 삶의 희망을 주었던 암석신앙의 성지였으며, 신라전국석화의 현장이다. 남산 좌우로는 넓은 평야가 놓여 있고, 북으로는 신라 왕족과 귀족들의 거대한 봉분, 동북편으로는 반월성 신원성 금성 등이 둘러싸고 있다. 서울의 남산보다는 조금 큰, 산으로 치자면 작은 산이다. 그러나 금오봉과 고위봉에서 흘러내린 수많은 봉우리들과 40여개의 계곡이 제법 깊어 안내자 없는 목척자를 지나치기 일쑤다. 그러나 어느 길로 들어서든 작은 봉우리와 70여개의 답사가 이어져 길을 잃을 염려는 없다. 작지만 큰 산. 이것이 남산의 비밀이다.

남산은 말 그대로 불교성지이다. 115곳의 절터, 87체의 불상, 71개의 석탑이 계곡과 능선마다 즐비해 가슴앞에 모은 손을 내려 놓지 못하게 한다. 그밖의 것까지 합한 불교유물유적은 422건에 이른다. 문화재로 지정된 것만도 보물 제124호 남산동 3층석탑, 미륵굴 석불좌상(136호) 등 22점이나 된다. 특히 탑골 마애9층탑(보물 201호)은 황룡사 9층목탑의 원형이라는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탑이어서 목탑연구의 귀중한 자료가기도 하다. 부처를 탑골 용장 사굴 열반굴 등 골짜기 이름만으로도 부처님나라이며,

남산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부처님 품에 안기는 것이다.

삼국유사의 기록들은 당시 남산에 갖은 부처님의 자취를 생생하게 복원해준다. 남산에 부처님이 계시는 곳을 알려주는 기록이다. "효소왕 6년(697) 망덕사에서 낙성회가 열렸다. 몸이 허름한 모양의 한 비구가 빈도도 이 재에 참석하기를 바랍시다"고 청했다. 왕은 이를 허락하고 희롱하며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디 사는가."

70여개 답사로 '작지만 큰산'

칠물암 마애삼존불(보물 제200호). 높이 5m 너비 8m로 병풍처럼 솟아 있는 절벽바위면에 놓은 불을 새김으로 삼존불이 새겨져 있다. 남산불상 가운데 으뜸으로 손꼽힌다.

## 절터·불상·석탑등 즐비 '세계적 노천박물관' 자연과 어우러진 유물들 천년의 신비 간직

'비파암입니다.' 왕이 다시 말하기를 '이제 가거든 다른 사람들에게 극왕이 친히 불공하는 재에 참석했다고 말하지 마라.' 비구승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폐하께서도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진신석가를 공양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몸을 숙구쳐 하늘로 올라가 남쪽을 향하여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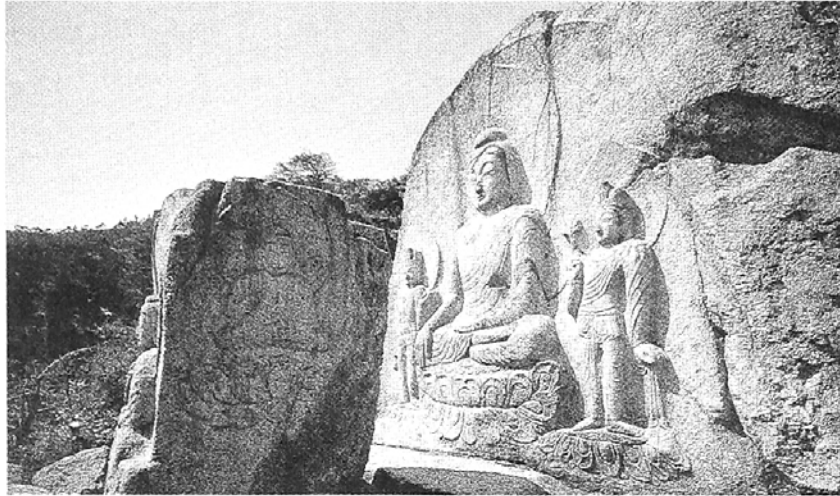
남산에는 또 석기시대 유적을 비롯 박혁거세가 알로 내려온 신라 창건설화의 현장인 나정(羅井), 경애왕이 백제군에 쫓겨 죽음을 맞이한 포석정, 남산성이 있다. 한국 고대사 연구의 태초로 사해도 고고학도라

#### 연재 순서

- ① 총론
- ② 남산은 어떤 산인가
- ③ 남산 훼손실태
- ④ 남산을 가꾸는 사람들
- ⑤ 남산 이렇게 지키자
- ⑥ 남산으로 떠나자

그러나하면 경주사적관리사무소의 김구석 씨는 '남산의 부처님들은 석공들이 쫓아서 만든 것이 아니다. 바위속에 계시던 부처와 보살들이 석공이 정을 대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지 않고 어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되묻는 말로 대답을 대신한다.

누구든 한번 오면 반하고 만다. 8천년 경주에 정착, 남산실적지도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는 송재중씨(신라중 교사)와 석불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한국석불문화연구회'를 구성하고 10여년 남도록 남산을 찾는 이근후교수(이화여대 신경정신과)는 '부드러운 능선과 깊은 계곡, 기암괴석, 늘 푸른 소나무



칠물암 마애삼존불(보물 제200호). 높이 5m 너비 8m로 병풍처럼 솟아 있는 절벽바위면에 놓은 불을 새김으로 삼존불이 새겨져 있다. 남산불상 가운데 으뜸으로 손꼽힌다.

만 거쳐 가지 않을 수 없는 곳이다. 그런가 하면 예술의 자양분을 공급하는 곳이기도 하다. 화가와 사진작가 시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김시습이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집 《금오신화》의 고향인 금오산의 남쪽 능선에 자리했던 용장사였다.

#### 한번오면 누구든 반해

처음 이곳에 온 사람들은 놀라움과 신비감에 사로잡힌다. 불교유적의 양에 놀라고 바위에 붓으로 그린 듯 조각한 솜씨에 감탄한다. 이 조그마한 산에 어찌 저리도 많은 유물유적이 모여 있는 것일까. 신라인의 숭고한 신앙심과 예술적 감성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

국립중앙박물관 강우방 학예연구실장은 '경주남산론'에서 '한국인의 종교적 정열이 이처럼 한곳에 집중된 암석산은 남산 이외에는 없다. 계곡마다에서 불교신앙의 흔적을 보여 모든 암석들과 수목들은 우리에게 뭔가를 속삭이는 것 같다'고 남산의 신비로움을 풀이했다.

◇용장계곡에서 바라 본 남산정상인 고위봉. 142×75. 95년. <그림=이호선>

무, 무엇보다 역사의 향기가 배었다는 것이 좋았다'라며 "자연과 함께 조상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산"이라고 남산을 예찬했다.

불교유적은 대체로 7세기에서 9세기에 조성된 것들이다. 93년 작고한 김원통선생은 '남산의 석불들은 7세기초 고신라 말기부터 시작하여, 10세기초 통일신라 말기까지의 약 3세기에 걸친 작품들이면서 많은 부분은 신라조각으로서의 전성기를 지난 8세기 후반과 9세기의 것들이다'고 밝혔다. 가장 오래된 부처님은 부처님의 동그런 달님같은 얼굴의 감실석불좌상이다. 남산은 3백년 역사를 한몸에 간직한 유일한 곳, 세계적인 노천 박물관이란 표현이 전혀 과장이 아니다.

경주의 향토사학자 윤경철선생은 이곳 남산을 '인류의 보배'라고 표현한다.

"부처님 얼굴은 또렷히 조각했으면서도 아래로 내려오면서 흐지부지 선으로 처리했는데, 산 그대로의 모습과 조화시킨 절묘함이다. 사람의 손길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자연과 조화를 꾀하려했던 신라인의 심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부처님이 가르친 삶의 지혜와 도리, 아름다운 전경이 남산에 있다."

정성운 기자

## 시론

### 이기고 지는 도리를 아십니까

— 여의도에 띄우는 편지

인사치례의 서두는 생략하겠습니다. 불췌 본론부터 꺼내는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그동안 삼척동자도 뻔히 아는 본론은 감추고 장황한 논리를 앞세워 명분 싸움만 해 온 정치인들에게 신물이 난 터라 필자는 거두절미하고 속에 있는 말을 먼저 털어 놓는 것이 차라리 신실한 것 같아서입니다.

#### 명분싸움만 하는 선량들

선량들이여, 하루 속히 입법부를 구성하십시오. 삼권분립 체제하에서 입법부의 공백은 단 하루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먼저 여당의원들께 말하겠습니다. '국회 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여당의 주장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살아 싸움 때문에 국회가 의정단 선출조차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은 양쪽 모두를 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이야 죽건 말건 재판에 이기기 위해 양쪽에서 잡아 담기 기만 하는 두 여자는 둘 다 생모가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서기 2000년 5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15대 국회는 20세기를 매듭짓고 21세기를 여는 의미 깊은 국회입니다. 또한 우리는 통일이라는 민족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시기에 국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은 새삼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지라도 민주주의의 묘미는 대화와 타협에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복수정당제도를 택한 소의도 개인이든 세력이든 어느 한쪽의 일방통행을 막기 위한 것임은 두말 할 필요도 없겠지요. 이는 '나는 속절없는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민일 권력을 독점하면 독선에 빠져 나도 위험하고 국가도 위험하고 국민도 불행해질 것입니다'라는 결핵한 고백을 제도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군자(君子)는 목적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有所不爲) 소인은 목적을 위해 하지 못하는 것이 없음(無所不爲)이 군자와 소인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인류는 위정자가 군자이기를 바라는 것보다 차라리 권력을 분절해서 상호 '견제와 균형'

(Check & Balance)을 유지하고 복수정당을 두어 경쟁하면서 협력하고 대립하면서 타협하는 유한정치(Limited policy)를 창안해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위정자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만 잘 지키면 군자의 왕도정치를 펼치는 셈이 됩니다. 참으로 지켜 불만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을 줄이겠습니다. 그러나 숲 속에 파란색 사람이 숲을 못 보듯 너무나 상식적인 해법이 선량들에게만 안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필자의 기우일까요? 어쨌거나 정치의 A, B, C가 무시되고 있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이고 보면 그것이 저만의 기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언하자면 중생은 누구든지 자기 입장에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인 일파의 족자를 제도적으로 막아 놓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충실하 달라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가정에 보면 어떻까요? 가령, 여당이 먼저 '국회의 개원이 협상의 대상일 수는 없지만 입법부 구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므로 원 구성의 정체를 조건으로 내세우는 당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다고 칩시다. 과연 여당이 지는 것일까요? 야당과의 힘 겨루기에는 족을지라도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는 이긴 싸움이 될 것입니다.

#### 국민은 솔로몬보다 현명

반대로 야당이 먼저 '국민이 선택한 여소야대를 인위적으로 바꾼 국회는 원상회복이 돼야 하지만 더 이상 입법부의 공백을 방치할 수 없으므로 일단 원 구성부터 해놓고 싸우겠다'고 선언한다면...? 아마 전투에 지고 전장에 이기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모래관의 씨름은 살아 싸움에 밀리면 본게임에서도 밀리지만 정치의 씨름은 살아 싸움에서 지는 것이 본게임에서 이기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정치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국민은 솔로몬보다 더 현명합니다. 아이를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차마 당기지 못하고 놓아 버리는 쪽이 진짜 생모인 것을 국민이 왜 모르겠습니까?



김재성 (서울신문 출판국 차장)



## 원력과 서원 기도가 함께하는 정중선원 고승 초청 영가 천도법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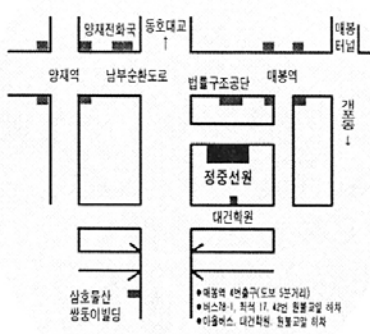
### 영가 천도제 왜 하여야 하나?

지난 4년 동안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영가천도 금강법회를 봉행하고 있는 저희 정중선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격주로 대덕 큰 스님을 모시고 "천도 시식 왜 하여야 하며 어떠한 공덕이 있는가?" 라는 주제로 천도법회 법문을 듣고자 합니다. 인연 있는 불자님의 많은 권선과 수희 동참을 바랍니다.

#### 금강법회 초청 법사

- 6월24일 월 상 큰스님(본선원 원장)
- 7월 1일 월 주 큰스님(조계종 총무원장)
- 7월 8일 무진장 큰스님(전 포교원장)
- 7월22일 증 범 큰스님(승가대 교수)
- 8월 5일 혜 정 큰스님(청계사 회주)

찾아오시는 곳



강남구 도곡동 518-7 영재빌딩 / 전화 578-8506번

정중선원 주지 광진 합장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 송월주 큰스님 초청 대법회

### ● 주제 :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이란

모든 증생과 더불어 불국토 건설을 목적으로 하며 또한 보살도를 실현하려는 자비의 실천 운동입니다.

왜 우리는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하는가?

불교 사회화 운동의 기수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께서 명쾌한 해답을 드립니다.

####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송월주 큰스님 초청법회

- 일 시 : 1996년 7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강남구 도곡동 정중선원
- 법문내용 :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에 대하여